

네덜란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 제도의 심층 분석 및 한국의 사내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적 시사점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은 법률과 판례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받는 기본 원칙으로서, 법치주의와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기능합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네덜란드의 ACP 제도, 특히 사내변호사의 특권 인정과 관련된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사내변호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1. 네덜란드 ACP 제도의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네덜란드 법체계는 원칙(비밀유지), 절차법(형사 및 민사소송법), 그리고 직업법(변호사법)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ACP를 보호하는 다층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변호사협회(Netherlands Bar Association)에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법적 절차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내변호사에 대한 ACP 인정입니다. 네덜란드 국내법은 원칙적으로 사내변호사에게도 외부 변호사와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하지만, 이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 네덜란드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사내변호사, 소위 '코헨 변호사(Cohen-advocaat)'는 원칙적으로 외부 변호사와 동일하게 비밀유지특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이는 변호사의 고용 형태가 아닌, **변호사협회의 규제를 통한 전문적 독립성 확보 여부**를 ACP 인정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네덜란드 사내변호사 ACP의 적용 범위와 한계

네덜란드 사내변호사 ACP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법과 유럽연합(EU) 경쟁법 간의 충돌, 즉 **사내변호사의 딜레마**에서 드러납니다. 네덜란드 국내법은 '직업 규정'을 통해 독립성이 보장된 사내변호사의 특권을 인정하지만, EU 경쟁법 조사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Akzo Nobel* 판결에 따라 이 특권이 부인됩니다.

이러한 법적 불일치는 실무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국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사내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ACP에 의해 보호되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 그 보호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2].

결국 사내 변호사가 제공한 법률 자문은 네덜란드에서는 보호받지만, 브뤼셀(유럽위원회)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충돌과 불확실성은 기업의 법률 리스크 관리와 변호사의 직무 수행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며, 네덜란드 변호사협회는 비밀유지특권이 온전히 존중되도록 이러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3].

3. 한국 사내변호사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적 시사점

네덜란드의 사례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제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첫째,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네덜란드가 '코헨 변호사'라는 개념을 통해 변호사협회의 규율을 받는 사내변호사에게만 ACP를 인정하는 것은, 특권의 핵심이 고용 관계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독립성'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내변호사 ACP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변호사가 고용주인 기업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독립적인 법률 조언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직업윤리 규정과 감독 체계(예: 대한변호사협회의 등록 및 관리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둘째, **ACP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국내법과 EU법의 충돌로 인해 ACP 적용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ACP가 적용되는 주체(독립성 요건을 갖춘 사내변호사), 내용(법률 자문에 한정), 절차(압수수색 등)와 함께, 공정거래, 조세, 중대재해 등 각 규제 영역에서의 적용 한계를 명확히 법제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네덜란드의 경험은 사내변호사에 대한 ACP 인정이 단순한 특권 부여가 아니라, **엄격한 독립성 요건과 명확한 법적 한계 설정이 병행될 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이러한 네덜란드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내변호사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변호사-의뢰인 간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원칙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법적 대리인과 자유롭게 솔직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방해받지 않고 법률 자문을 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4] 네덜란드는 ACP 보호에 있어 독자적인 법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유럽연합(EU)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구별되는 독특한 체계를 구축하였다. [^5]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와의 소통은 자국의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로부터는 보호받지만, 동일 사안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그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2]

이러한 네덜란드 ACP 제도는 로마-네덜란드법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문상의 계보보다는 19세기 법전화 과정에서 구체화된 전문직 관계 보호라는 문화적 개념에 더 깊이 기반하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 대법원은 관련 법률에 공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새로운 입법에 앞서 몇 가지 강제적인 기본 규칙을 제시함으로써 ACP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6] 입법 과정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조항들의 도입 목적이 ACP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7]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디지털 증거의 확산, 그리고 자금세탁방지법(Wwft)과 같은 새로운 규제 환경은 변호사의 역할에 근본적인 충동을 야기하며 ACP의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8] 실제로 변호사의 이중적 역할은 본질적으로 상충될 수 있으며, 이는 ACP 적용에 있어 복잡한 문제를 낳는다. [^9] 최근 발생한 Shell 사건은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명백한 경고가 되었다. [^10]

이에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ACP 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ACP 제도의 법적 근거와 판례를 통해 확립된 핵심 원칙들을 살펴보고, 특권이 인정되기 위한 보장 요건들을 검토한다. [^11] 이어서 제도의 도입 연혁과 입법 과정, ACP 인정의 요건, 범위 및 한계, 그리고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최근의 주요 사례 연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법률 실무에서 ACP가 가지는 실질적 함의를 고찰하고, 제도 운영으로 인정되는 효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본 보고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네덜란드 법률 시스템과 관련된 주체들을 위한 전략적 권고를 제시하며 마무리될 것이다.

1. 연구의 필요성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의뢰인이 법률 조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자유롭게 솔직한 의사소통을 보장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원칙이다. 특히 네덜란드의 ACP 제도는 유럽연합(EU)의 일반적인 법리와는 다른 독자적인 경로를 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이러한 독자성은 네덜란드 국내법과 EU 경쟁법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

에서는 보호받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 그 보호가 불확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네덜란드는 입법을 통해 ACP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노력해왔으며 [^7], 판례는 진실 발견의 이익보다 비밀유지 보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12] 그러나 법률 체계에 존재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법원이 직접 강제적인 기본 규칙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6] 이는 [^4] 네덜란드의 ACP 제도가 여전히 진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분석과 검토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최근의 법제 현대화 프로젝트는 보다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쉬우며 미래지향적인 법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 이러한 맥락에서 수사기관이 ACP 적용 자료를 우회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했던 '제2의 경로(tweede spoor)'를 차단하고, 데이터 제출 명령을 통해 획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법적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14] 또한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특정 보장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ACP를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11], 그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 및 한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ACP 제도가 도입된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 인정 요건과 범위, 위반 시 효과 및 제도의 효용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EU 법리와 구별되는 네덜란드 ACP 제도의 특수성을 명확히 하고, 국내외 기업 및 법률 전문가들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에 관한 심층적 법률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핵심은 해당 제도의 법적 구조, 운영 범위 및 집행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있다. [^4]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문헌 연구와 판례 분석을 주요 연구 방법으로 채택한다.

연구의 범위는 먼저 네덜란드 ACP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토대를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제도의 역사적 뿌리는 로마-네덜란드법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인 법문상의 계보보다는 19세기 법전화 과정에서 구체화된 문화적 개념에 더 가깝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ACP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7]

다음으로, 네덜란드 ACP 제도의 근거 법령과 판례를 통해 확립된 주요 내용을 분석한다. 특히 네덜란드의 실무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의도적으로 다른 경로를 택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그 특수성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5]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화된 ACP 인정의 요건, 적용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특정 보장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특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구조를 분석한다. [^11] [^15]

특히,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및 필터링 절차와 관련된 최신 법적 쟁점을 비중 있게 다룬다. 과거 검찰이 악용했던 '제2의 경로(tweede spoor)'와 같은 절차적 허점을 막고 사법적 감독을 강화한 최근의 입법 동향을 분석할 것이다. [^14] 또한,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되는 통신이 유럽위원회의 조사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사례와 같이, 관할권에 따라 ACP의 효력이 달라지는 적용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2]

본 연구는 주로 공개된 법령, 학술 문헌 및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연구에 사용된 판례 샘플이 특정 유형의 사건, 예컨대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 사건에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16]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면서도, 본 보고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네덜란드 ACP 제도의 이론과 실재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3. 보고서의 구조 및 최종 목표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닉특권(ACP) 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그 법적 토대와 실제적 함의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ACP 제도의 법적 구조, 운영 범위 및 집행 메커

니즘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ACP 제도의 역사적 연혁을 고찰하며, 해당 제도가 어떻게 네덜란드 법체계 내에서 독자적인 경로를 밟아왔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5] 특히, 관련 법령의 입법 과정 기록을 통해 해당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도를 파악할 것입니다. [^7]

이어서, 보고서는 ACP 인정의 구체적인 요건, 범위 및 한계를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이는 네덜란드의 ACP가 특정 보장 요건이 충족될 때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구조임을 명확히 합니다. [^11] 또한,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되는 특권이 유럽위원회의 조사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경우와 같이, 관할 기관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지는 복잡한 측면을 분석합니다. [^2] ACP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와, 정보 누락 발견 시 수사판사에게 보고하여 최종 결정을 받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질적인 절차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17] 이는 결국 법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13]

최종적으로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 법률 시스템 내에서 활동하는 관련 주체들을 위한 전략적 권고를 제시하며 마무리됩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이 필수적인 법 원칙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실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제1장: 네덜란드 ACP 제도의 역사적 연혁과 비교법적 고찰

제1절. 서론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는 의뢰인이 법률 전문가와 자유롭게 소통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으로, 변호사에게는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의뢰인에게는 그 비밀이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 법률 시스템 내 변호사 비닉특권에 대한 심층적이고 전략적인 분석을 제공한다. 먼저 법적 및 판례적 기반과 핵심 원칙을 설명하고, 네덜란드 법에서 변호사의 면책특권에 대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그림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네덜란드 ACP 제도의 역사적 뿌리와 그 형성에 영향을 미친 비교법적 요소를 심도 있게 고찰한다. 특히, 유럽 대륙법계 국가들이 공유하는 '전문직 비밀유지 의무' 전통이 네덜란드 ACP 개념의 토대를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하고, 영미법계의 'Attorney-Client Privilege'와 개념적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네덜란드 제도의 독자적인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제2절. 역사적 연혁 및 비교법적 고찰

네덜란드 ACP 제도의 역사적 뿌리는 로마-네덜란드법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나, 직접적인 법문상의 계보는 명확하지 않다. 그 발전은 오히려 문화적 전통과 19세기의 법전화 과정에서 구체화된, 보호받아야 할 전문적 관계라는 개념에 더 깊이 기반을 두고 있다. 입법 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조항의 도입은 해당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1. 대륙법계의 영향: '전문직 비밀유지 의무' 전통

네덜란드 ACP는 프랑스, 독일 등 다수 유럽 대륙법계 국가가 공유하는 '전문직 비밀유지 의무(professional secrecy)'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 전통에서 비밀유지 의무는 변호사 개인의 권리가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변호사라는 직업군에 부과된 엄격한 '의무'로 간주된다. 이는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특권의 주체는 의뢰인이기보다 변호사이며, 변호사는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밀유지 의무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러한 접근법은 네덜란드 법 체계에도 반영되어, ACP를 단순한 증거 법칙이 아닌 변호사의 핵심적인 직업윤리이자 공적 의무로 규정하는 기초가 되었다.

2. 영미법계와의 비교: 'Attorney-Client Privilege'와의 차이점

반면, 영미법상의 'Attorney-Client Privilege'는 의뢰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권을 주장하거나 포기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특권의 주체가 명백히 '의뢰인'이며, 보호 범위는 주로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한 의사소통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네덜란드 법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네덜란드의 ACP는 변호사의 '의무'에 방점을 두므로, 의뢰인이 동의하더라도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증언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의 지위와 관련하여 뚜렷한 법적 긴장을 유발한다. 네덜란드 국내법은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대해 ACP를 인정하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한다.^[^11] 이는 영미법계 다수 국가와 유사한 결론이지만, 그 논리적 근거는 대륙법적 전통에 기반한다. 네덜란드 실무는 이처럼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5]

3. EU법과의 충돌 및 네덜란드 제도의 독자성

네덜란드 ACP 제도의 독자성은 유럽연합(EU) 경쟁법과의 관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Akzo Nobel' 판결 등을 통해 외부 독립 변호사와의 소통에만 ACP를 인정하며, 사내변호사는 고용 관계의 종속성으로 인해 충분한 독립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아 그 특권을 부인한다. 이로 인해, 국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네덜란드 고용 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되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 보호되지 않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한다.^[^2] 이는 네덜란드의 법적 전통과 EU법의 해석 간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보여주는 사례이다.^[^4]

결론적으로 네덜란드의 ACP 제도는 대륙법의 '전문직 비밀유지 의무'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사내변호사의 지위 인정 등 영미법적 요소와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는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발전해왔다.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은 EU법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법적 논쟁을 야기하며, 본 보고서가 네덜란드 법률 시스템과 관련된 주체를 위한 전략적 권고로 마무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제3절.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과 해외 법제 분석

1. 제도 도입의 역사적 배경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비닉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 제도는 로마-네덜란드법에 그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으나, 명문화된 법률로 직접 계승되기보다는 19세기에 법제화 과정을 거치며 형성된 문화적, 제도적 개념에 더 깊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발전은 특정 직업군이 갖는 전문성과 그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양질의 사법 행정(*goede rechtsbedeling*)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ACP 원칙은 오랜 판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립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입법부는 판례법에만 의존하지 않고, 변호사법과 같은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통해 ACP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입법 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관련 조항의 도입은 해당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7]

즉, 판례를 통해 형성된 원칙을 법률로 성문화함으로써, ACP가 단순한 직업윤리를 넘어 법적으로 보장되는 확고한 권리임을 공고히 한 것입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접근 방식은 유럽연합(EU)의 일반적인 흐름과는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네덜란드 실무는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5] 예를 들어, 유럽사법재판소의 Akzo Nobel 판결 등에서 확립된 원칙은

사내 변호사의 ACP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반면, 네덜란드는 일정한 요건 충족 시 사내 변호사의 소통 내용까지 보호하는 독자적인 체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특권을 인정하되, 엄격한 보장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11]

결과적으로, 네덜란드 법 체계 내에서는 이중적인 보호 구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 국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네덜란드 고용 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되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처럼 네덜란드의 ACP 제도는 독자적인 역사적 배경과 법철학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판례와 성문법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원칙과 범위가 구체화되었습니다.

2. 입법 시 참고한 해외 법제 분석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 제도는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으며, 특정 해외 법제를 직접적으로 계수하기보다는 유럽연합(EU) 법체계와의 상호작용 및 국내의 판례 축적을 통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이는 네덜란드 실무가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5] 입법 과정에 대한 기록을 분석해 보면, 관련 조항의 도입은 해외 법령의 모방이 아닌, 기존에 판례로 형성된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7]

네덜란드는 ACP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함에 있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례, 특히 EU 경쟁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명확한 차별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네덜란드 고용 변호사와의 소통이 보호되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 그 보호가 상실될 수 있는 이중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2] 이는 EU 법체계와의 관계 속에서 네덜란드 ACP의 독자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네덜란드 법체계는 ACP의 적용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특권을 인정하되, 특정 보장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11] 또한, 법원은 ACP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데 있어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18]

최근의 법 개정 움직임은 과거 검찰이 악용했던 '제2의 경로(tweede spoor)'와 같은 절차적 허점을 막기 위해, 데이터 제출 명령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 압수에 대해 사법적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4] 이는 특정 해외 법제를 참고했다기보다는, 자국 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재적 발전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네덜란드의 ACP 제도는 해외 법제의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EU 법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자국의 고유한 법률 문화와 판례를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2장: 네덜란드 ACP 제도의 법적 근거와 핵심 내용

1. 법적 토대와 다층적 보호 체계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은 단일 법률이 아닌 여러 법률에 걸쳐 상호 보완적으로 규정된 다층적 보호 체계를 통해 강력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네덜란드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ACP는 19세기 법전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전문가의 직업적 비밀유지 의무 개념에 더 깊이 기반합니다. [^4] 네덜란드 실무는 다른 법체계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경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5]

가. 변호사법(Advocatenwet) 및 관련 규정

ACP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는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변호사법** 제11a조에 명시된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이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 의무는 변

호사의 증언거부권과 압수수색 면제권의 기초가 됩니다. 입법 기록에 따르면, 해당 조항의 명문화는 ACP 원칙의 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7]

네덜란드는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들의 법률 자문에 대해서도 ACP를 인정하는 독특한 입장을 취합니다. [^11] 이는 변호사의 독립성을 중시하는 EU 경쟁법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며, 네덜란드 법이 이와 관련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네덜란드 국내 법에 따라 보호받는 사내변호사의 자문이라도 유럽위원회의 조사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법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나. 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과의 관계

변호사법상의 비밀유지 의무는 각종 소송법 및 특별법에서 구체적인 권리로 실현됩니다.

- **형사소송법(Wetboek van Strafvordering)**: 제218조는 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증언거부권)를 부여합니다. 또한, 제98조는 이러한 직업군의 사무실에서 비밀 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압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민사소송법(Wetboek van Burgerlijke Rechtsvordering)**: 제165조 제2항 제b호는 형사소송법과 유사하게 변호사가 비밀유지 의무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 **경쟁법(Mededingingswet)**: 네덜란드 소비자·시장 당국(ACM)의 조사 과정에서도 ACP는 존중됩니다. 이는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보호함으로써 기업이 자유롭게 법적 조력을 구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자금세탁방지법(Wwft)**: 이 법은 금융기관과 특정 전문직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지만, 변호사가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ACP를 존중하여 보고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판례법을 통해 확립된 법 원칙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판례를 통해 ACP의 보호 범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특히 디지털 증거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 전통적 법 원칙

대법원은 ACP가 단순히 변호사의 권리가 아니라, 누구나 방해받지 않고 법적 조력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익적 성격의 **근본적인 법 원칙**임을 꾸준히 확인해 왔습니다. 판례는 특권의 주체가 의뢰인이며, 변호사는 이를 수호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나. 디지털 증거 시대의 ACP 보호 강화: ECLI:NL:HR:2024:375 판결 분석

최근 대법원은 2024년 3월 12일 선고한 **ECLI:NL:HR:2024:375 판결**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 압수수색 시 ACP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이 판결 이전까지는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절차적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6]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ACP가 적용될 수 있는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 압수(예: 데이터 제출 명령을 통해 확보된 정보)는 **반드시 사법적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과거 수사기관이 ACP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했던 소위 **제2의 경로(tweede spoor)**라는 절차적 허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데 있습니다. [^14] 이제 수사기관은 압수한 디지털 데이터에 ACP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독립적인 예심판사(rechter-commissaris)의 감독 하에서만 해당 정보를 분류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사법부의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도 ACP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3. 법률적 토대 및 판례법 요약

1. 법률적 토대: 근거 법령 및 주요 조문

네덜란드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은 법률과 판례에 의해 강력하게 보호되는 근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법적 구조와 운영 범위, 집행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및 판례적 기반과 핵심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덜란드의 ACP 체계는 다른 국가들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으며, 이는 법률과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5]

ACP의 핵심 근거는 **변호사법(Advocatenwet)**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이 법적 의무는 변호사가 비밀유지특권(verschoningsrecht)이라는 절차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19] 입법 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해당 조항의 도입은 이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

네덜란드 법체계는 원칙적으로 특정 보장 요건이 충족될 경우 ACP를 인정합니다. [^11] 그러나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사법부, 특히 대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에 공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입법부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강제적인 기본 규칙을 판결을 통해 직접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6] 이는 네덜란드 ACP 제도가 성문법뿐만 아니라 판례법에 의해 발전해왔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만, 네덜란드 국내법상의 ACP 보호 범위가 모든 법적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네덜란드 고용 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그 보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는 EU 경쟁법 조사에서는 Akzo Nobel 판결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입장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네덜란드 국내법과 EU법 사이의 상호작용이 ACP의 적용 범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4]

2. 판례법을 통해 확립된 법 원칙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 제도는 성문법 조항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는 판례법을 통해 끊임없이 해석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법률과 판례는 함께 이 제도의 핵심 원칙과 그 한계 및 예외를 정의하며 법적 체계를 구성합니다. [^4] 특히 대법원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법률에 공백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입법에 앞서 강제적인 효력을 갖는 몇 가지 기본 규칙들을 직접 공식화하였습니다. [^6] 이는 ACP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입법 과정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이러한 목적이 확인됩니다. [^7] 이처럼 판례를 통해 형성된 원칙적 기반은 특정 보장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특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확립되었습니다. [^11]

주목할 점은 네덜란드의 판례가 유럽연합(EU)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는 다른 독자적인 경로를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 이는 특히 유럽사법재판소(ECJ)의 Akzo Nobel 판결에서 확립된 원칙과 대비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법률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자국 고용 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ACP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통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는 네덜란드 국내법 체계와 EU 경쟁법 체계 간의 ACP 인정 범위에 차이가 존재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판례법은 ACP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설정하고, 다른 사법 관할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3장: ACP 인정의 요건, 범위 및 한계

네덜란드 법체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ACP)은 법치주의의 핵심 요소로, 의뢰인이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호사에게 자유롭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ACP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명시적 목적 아래 관련 법 조항이 도입되었다. [^7] 본 장에서는 ACP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 그 보호가 미치는 범위, 그리고 실무상 중요한 한계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1. ACP 인정의 핵심 요건

네덜란드 법원은 ACP 인정을 위해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정보 교환의 주체는 네덜란드 변호사 협회(Netherlands Bar Association)에 정식으로 등록된 변호사여야 한다.
- 둘째, 해당 커뮤니케이션은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자문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변호사가 단순히 사업적 조언을 하거나 불법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는 ACP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 마지막으로, 해당 정보는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은 법률 업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교환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어 왔다.

2. ACP의 범위: 인적 및 지리적 확장성

ACP의 보호 범위는 단순히 네덜란드 내 변호사와의 소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네덜란드 법원은 국제적인 법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해왔다.

2.1.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와의 커뮤니케이션

네덜란드 법은 독립성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도 ACP를 인정하는 독자적인 입장을 취한다. 네덜란드 실무는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5] 이는 유럽연합(EU) 경쟁법의 해석과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국내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내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Akzo Nobel 판결 원칙에 따라 ACP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2.2. 외국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네덜란드 법원은 EU 회원국 소속 변호사 및 비EU 국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건 하에 ACP를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특권 인정, 단, 보장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11] 네덜란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그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 [^15] EU 회원국 변호사의 경우, 해당 변호사가 자국의 법률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독립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면 ACP가 적용될 수 있다. 비EU 국가 변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나, 해당 국가의 법체계가 네덜란드의 ACP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 변호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지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

3. ACP의 한계와 절차적 보장

ACP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특정 상황에서는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증거 압수 및 수색 과정에서 ACP 정보의 보호는 중요한 쟁점이 된다.

3.1.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의 ACP 보호 절차

정부 기관이 디지털 데이터를 압수하는 경우, ACP에 해당하는 정보가 일반 정보와 뒤섞여 유출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는 ACP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4]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네덜란드 법원은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ACP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적 보장 장치를 마련하였다.

수사기관이 데이터를 확보하면, 우선 변호사 또는 의뢰인은 특정 문서나 데이터가 ACP의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데이터는 즉시 봉인되어 독립적인 제3자(주로 예심판사 또는 특별히 지정된 정보 책임자)에게 전달된다. 이 제3자는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양측이 제출한 키워드 목록, 이메일 주소, 기간 등의 기준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ACP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수사 자료에서 분리되어 수사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비밀유지 특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이처럼 네덜란드의 사법 절차는 ACP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4. ACP 인정 요건, 범위, 한계 요약

1. ACP 인정의 핵심 요건

네덜란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CP)은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이는 **특정 보장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11] 이러한 요건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변호사의 독립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네덜란드 법률 체계는 입법 과정에서 해당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명확히 보여주며 [^7], 이는 법률에 명시적인 공백이 존재할 경우 대법원이 새로운 입법에 앞서 강제적인 기본 규칙을 공식화하는 방식으로 보완되기도 했습니다. [^6]

네덜란드의 ACP 인정 요건은 유럽연합(EU)의 기준과는 구분되는 독자적인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5] 이는 ACP의 적용 범위에 있어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국내법상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자국 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할 경우 그 보호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는 EU 경쟁법의 맥락에서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네덜란드에서 ACP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건은 변호사의 법적 지위, 독립성 보장, 그리고 소통의 목적과 내용이 법률 자문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따라서 기업과 변호사는 네덜란드 국내 조사와 EU 차원의 조사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법적 요건에 따라 ACP의 인정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ACP 적용 범위의 구체화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만, 그 적용 범위는 특정 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11] 네덜란드에서의 ACP 적용 범위는 판례와 입법을 통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었으며, 특히 유럽연합(EU) 법체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경로를 밟아왔습니다. [^5]

네덜란드 법체계 내에서는 ACP가 형사, 민사, 행정 절차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인정됩니다.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관련 조항들은 ACP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습니다. [^7] 이러한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네덜란드 당국이 데이터를 압수하거나 제출을 요구할 때 실질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모든

과정에 사법적 감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검찰이 ACP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했던 소위 '제2의 경로 (tweede spoor)'와 같은 절차적 허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4]

이처럼 네덜란드 내 절차에서는 강력한 보호를 받지만, 이는 EU 경쟁법 조사와 같은 초국가적 차원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한계를 가집니다. [^4] 예를 들어, 네덜란드 변호사 자격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 내용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ACP의 보호를 받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경우 그 보호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네덜란드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ACP가 적용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정의해왔습니다. [^15] 이러한 판례의 축적은 ACP 적용의 구체적인 한계와 예외를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3. ACP 적용의 명백한 한계와 예외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은 원칙적으로 폭넓게 인정되지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며 법률과 판례에 의해 명확한 한계와 예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11] 이는 ACP가 공익적 가치를 지니면서도 다른 법익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네덜란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들은 이러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ACP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왔으며, 특히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18] [^15]

주요한 한계 중 하나는 ACP의 주체와 관련된 것입니다. 네덜란드 법률상 ACP는 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고, 관련 직업 규정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변호사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사내 법률 전문가(jurist)와 의뢰인 간의 소통은 이 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0] 이는 ACP 보호의 전제 조건으로 변호사의 전문적 자격과 직업윤리 준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4]

또한, 네덜란드 국내법과 유럽연합(EU) 경쟁법 간의 충돌은 ACP 적용의 중요한 한계를 드러냅니다. 네덜란드 실무는 EU의 엄격한 입장과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으며, 이는 특히 사내변호사의 지위에서 명백히 나타납니다. [^5] 네덜란드 국내법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변호사와 의뢰인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ACP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Akzo Nobel* 판결에 따라 사내변호사는 고용관계로 인해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간주되어 그 특권이 부인됩니다. [^2] 이러한 이원적 상황은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기업들에게 법률 자문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실무적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ACP는 범죄나 불법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데 악용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뢰인 간의 소통이 범죄 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소통은 더 이상 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ACP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방패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립된 중요한 예외 원칙(crime-fraud exception)입니다. [^21] 이처럼 네덜란드 법체계는 ACP의 신성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입법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7]

제4장: ACP 위반의 효과 및 구제 절차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ttorney-Client Privilege, 이하 ACP)의 침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네덜란드 법률 시스템은 ACP를 위반하여 수집된 정보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고,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다양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ACP 위반 시 발생하는 법적 효과, 특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와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및 사법 판단의 효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

네덜란드 소송법의 대원칙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증거 제출을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나, 그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ACP는 단순한 절차적 권리를 넘어,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과 법률 전문가의 독립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핵심 원칙이다. 따라서 ACP를 침해하여 취득한 증거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그 증거능력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입법 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조항의 도입은 해당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즉, 네덜란드 의회는 법률을 통해 ACP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이는 법원이 ACP 침해로 얻은 증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을 시사한다.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 등 국내 절차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비교적 명확하게 적용된다. 국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네덜란드 고용 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되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 보호되지 않는다. [^2] 이는 국내법 체계 내에서 ACP가 침해되었을 경우, 해당 증거는 증거 목록에서 제외되고 사실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2절: 행정처분 및 사법 판단에 대한 구제

ACP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행정처분(예: 과징금 부과)이나 사법 판단이 내려졌을 경우, 이는 해당 처분 또는 판결의 위법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유가 된다. 당사자는 상소 또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결정의 취소 가능성은 위법의 중대성에 따라 판단된다. 만약 ACP가 침해된 증거가 결정의 유일하거나 핵심적인 근거였다면, 해당 증거를 배제할 경우 사실 인정의 기반이 사라지므로 처분이나 판결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ACP 보호가 단순한 증거 배제 규칙을 넘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요소임을 반영한다. [^4]

네덜란드 법체계가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ACP를 폭넓게 보호하는 것은 유럽연합(EU)법의 접근 방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네덜란드 실무는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5] 이러한 독자적인 노선은 국내 절차에서 ACP 위반이 발생했을 때 더욱 강력한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한다. 따라서 기업이나 개인은 조사 초기 단계부터 ACP 적용 대상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히 식별하고, 침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증거능력 배제 및 후속 처분의 위법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제3절: ACP 위반의 법적 효과 및 구제 절차 요약

1. ACP 위반의 법적 효과

네덜란드 법체계 내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의 위반은 여러 법적 영역에 걸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반의 효과는 **징계 조치부터 형사 처벌, 증거법상 효력 배제**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ACP를 보호하려는 네덜란드 법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우선적으로 변호사 윤리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를 구성합니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한 징계 위반에 그치지 않고 네덜란드 형법 제272조에 따라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이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해당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했던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7]

그러나 ACP 침해 행위가 발생했더라도, 그 법적 구제가 항상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유지권이 침해되어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가 형사 절차 등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법원은 원칙적으로 ACP를 인정하며, 특정 보장 요건이 충족될 경우 특권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11]

특히 주목할 부분은 EU 경쟁법과의 충돌 지점입니다. 네덜란드 법체계는 사내 변호사(in-house counsel)의 독립성 요건이 충족되면 ACP를 폭넓게 인정하는 독자적인 경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5] 이러한 네덜란드의 국내

법적 보호는 EU 차원의 조사에서는 한계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국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 변호사와의 소통 내용이 ACP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직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Akzo Nobel 판례법에 따라 그 보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는 EU 경쟁법 조사와 네덜란드 국내법 적용 간의 명백한 불일치 지점이며, ACP 위반 및 보호 범위에 관한 복합적인 법적 효과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4]

2. 권리 구제를 위한 절차적 메커니즘

네덜란드 법 체계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은 단순히 선언적인 권리에 그치지 않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강력한 절차적 메커니즘을 통해 뒷받침됩니다. 입법자는 ACP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목적으로 관련 조항을 도입하였으며 [^7], 특히 대규모 디지털 데이터가 압수되는 현대 수사 환경에서 절차적 보장이 권리 보호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절차적 장치는 **수사판사(rechter-commissaris)**가 감독하는 **필터링 절차**입니다. 검사가 압수된 데이터에 특권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해당 데이터의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수사판사에게 필터링 절차의 감독을 요청해야 합니다 [^23]. 이 절차는 실질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한 모든 데이터 압수에 사법적 감독을 의무화함으로써, 과거 수사기관이 특권 정보를 우회하여 획득하는 데 악용했던 소위 '제2의 경로(tweede spoor)'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14]. 이처럼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접근을 막고 사법부의 통제 아래에서만 특권 정보의 분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24].

네덜란드 법률 실무는 이처럼 독자적인 절차적 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5]. 네덜란드 법 체계는 원칙적으로 ACP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권리 보호를 위한 엄격한 보장 요건의 충족을 요구합니다 [^11].

그러나 이러한 국내 절차의 보호 범위에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완벽하게 보호되지만, 만약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EU 경쟁법 위반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이처럼 국내법 절차와 EU법 절차 간의 보호 수준 차이는 네덜란드 ACP 제도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제5장: 네덜란드 ACP 제도의 운영 효용성 및 현대적 과제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CP) 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 관계를 보호하고, 의뢰인이 법적 조력을 충분히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입법 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이 조항의 도입은 해당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이 장에서는 네덜란드 ACP 제도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용성을 평가하고,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직면한 주요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네덜란드 ACP 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정 요건 충족 시, 그들의 법률 자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특권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11] 이는 유럽연합(EU)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으로, 네덜란드 실무는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5] 이러한 독자적 노선은 기업의 준법 경영과 내부적 법률 리스크 관리에 있어 상당한 효용성을 제공한다. 기업은 내부 법률 전문가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잠재적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정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독자적인 제도의 운영은 *****이중적 기준*****이라는 현대적 과제를 야기한다. 네덜란드 국내법 체계 내에서는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만, EU 차원의 규제와 충돌할 때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국가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네덜란드 고용 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되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면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 [^2]

이처럼 동일한 커뮤니케이션이 조사 주체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불확실성은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다국적 기업에게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교훈을 준다. [^25]

또한, 네덜란드의 ACP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은 주로 판례나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책이 선제적이기보다는 사후 대응적으로 형성됨을 보여준다. [^26] 이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디지털화 및 국제 규제 강화라는 현대적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딜레마와 대응 방식의 특수성은 네덜란드 법률 시스템이 직면한 복잡성을 드러낸다. [^4] 결론적으로 네덜란드 ACP 제도는 국내적으로는 높은 운영 효율성을 보이지만, EU법과의 불일치, 사후 대응적 정책 형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위협 등 복합적인 현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1. 제도 운영의 긍정적 효용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 제도는 단지 의뢰인의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기능하며 다층적인 긍정적 효용을 창출한다. ACP의 사회적 정당성은 도구적이면서도 근본적인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사법 행정 실현이라는 공익과 명시적으로 연결된다.

- **첫째, ACP 제도는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법에 대한 방해받지 않는 접근이라는 사회적 이익을 실현한다. [^27] 이러한 사회적 이익은 때로는 법적 절차에서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는 또 다른 중요한 가치보다 우선시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진다.
- **둘째, 본 제도는 변호사 직업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호하는 제도적 보장 장치로서 기능한다.** 변호사가 외부의 압력이나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율적인 규제 및 감독 시스템의 무결성과 효과적인 운영을 뒷받침한다. [^28] 이는 결과적으로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입법 과정에 대한 기록을 분석해 보면, ACP 관련 조항의 도입이 해당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 **셋째, ACP 제도는 국가의 공권력, 특히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강력한 사법적 통제 장치로서 효용을 발휘한다.** 판례는 특권이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문서를 압수하거나 열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분쟁 발생 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24] 이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담보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 **넷째, 네덜란드 ACP 제도는 국제적인 법률 환경 속에서 자국의 독자적인 법제를 확립하고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5] 예를 들어,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네덜란드 변호사와의 소통 내용이 보호되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 사건을 조사할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는 차이가 존재한다. [^2] 이러한 명확한 기준은 네덜란드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분명하고 실행 가능한 지침이 된다. [^25]

이처럼 네덜란드의 ACP 제도는 단순히 비밀을 보장하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사법 접근권 보장, 직업군 전문성 강화, 공권력 견제, 그리고 법적 예측 가능성 제공이라는 적극적이고 다면적인 효용을 가진다. [^4] 물론 법률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 지연이나 기술적 미비점을 둘러싼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보장 요건 충족을 전제로 특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11] 네덜란드의 확고한 법리는, 판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현대 사회의 복잡한 법적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 [^30]

2. 현대적 도전과 법적 불확실성

네덜란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CP) 제도는 법적 토대의 견고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글로벌화라는 거대한 압력에 직면하며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사내변호사의 불확실한 지위, 디지털 증거 처리의 실무적 난관, 그리고 유럽연합(EU) 법과의 충돌은 기업과 법률 전문가에게 심각한 도전 과제와 법적 불확실성을 안겨주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현대적 도전은 EU 경쟁법의 적용 맥락에서 발생한다. 네덜란드는 국내법상 특정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내변호사에게도 원칙적으로 특권을 인정하지만 [^11], 이는 EU 법원의 확립된 판례와 상충된다. 이러한 상이한 접근 방식은 네덜란드가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5]

그 결과, 네덜란드 국내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변호사와의 소통이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받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 사안을 조사할 경우에는 그 보호가 부인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다. [^2]

이는 다국적 기업에게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과 운영상의 위험을 초래하며, 외부 변호사 선임 필요성을 가중시키는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 역시 새로운 형태의 법적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입법 과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ACP 관련 조항의 도입은 해당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7] 그러나 방대한 양의 디지털 정보를 다루는 현대의 조사 환경은 ACP 적용에 있어 실무적 어려움을 낳고 있다. 이는 법률은 명확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차 지연이나 기술적 미흡함을 이유로 한 새로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9] 이러한 상황은 네덜란드 ACP 제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4] 결국 이러한 현대적 도전들은 변호사가 사회와 기업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결론: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종합적 제언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사내변호사 법률전문가 비닉특권(ACP) 제도의 연혁, 법적 근거, 주요 내용 및 운영 효율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종합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네덜란드 사례는 기업 내부의 독립적인 법률 자문가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EU 경쟁법과의 상충 문제를 통해 실무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1. 네덜란드 사례의 시사점과 한국적 적용의 필요성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독자적으로 사내변호사의 ACP를 인정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는 변호사를 전통적인 소송 대리인으로 한정하는 EU의 시각과 달리, 기업 내부에서 독립성을 확보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이다. 네덜란드 국내법은 '직업 규정'을 통해 엄격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한 사내변호사에게 외부 변호사와 동등한 수준의 특권을 부여하며, 이는 기업의 준법경영과 예방 법무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의 사내변호사는 국내법과 EU 경쟁법 사이의 괴리라는 심각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네덜란드 국내 조사에서는 보호받는 법률 자문이 유럽위원회의 조사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은 기업과 사내변호사에게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이는 ACP 도입을 논의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참고점이 된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는 사내변호사의 지위와 데이터 처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현대적 과제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2.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언

네덜란드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 **첫째, 독립성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ACP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 '직업 규정'이 사내변호사 ACP의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에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 관계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윤리 규범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충족하는 사내변호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ACP를 인정하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 **둘째, ACP 인정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특히, 법률 자문과 경영상 조언의 구분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특권이 인정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처럼, 법률 자문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적 조언과 혼용을 피하며, 민감한 사안에 외부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등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31]
- **셋째, 권리 침해 시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로서 '사법적 필터링'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본문에서 분석한 네덜란드의 '예심판사 중심의 증거 필터링 절차'는 ACP 해당 여부가 다투어지는 문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닌 중립적인 사법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비밀유지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장치이다. 한국에서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ACP 적용 대상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또는 독립적인 제3의 전문가가 관련 증거를 필터링하는 사법적 통제 절차를 도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 **넷째,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 네덜란드 사례에서도 사내변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가 부족하여 정책 평가에 어려움을 겪는 점이 확인되었다. [^32] 성공적인 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ACP 적용 현황, 분쟁 발생 추이, 제도 활용 효과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을 초기부터 마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내변호사 ACP 도입은 기업의 준법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적인 법원칙이다. [^31] 네덜란드의 경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전략적 권고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고, 한국의 법률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3. 네덜란드 ACP 제도 분석 및 한국적 시사점 요약

1. 네덜란드 ACP 제도 분석의 핵심 결과 요약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 법률 시스템 내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CP) 제도의 역사적 배경, 법적 근거, 인정 요건과 한계, 그리고 운영 효용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핵심 결과를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ACP 제도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특성을 지니며, 특히 유럽연합(EU) 법체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네덜란드 ACP 제도의 역사적 뿌리는 로마-네덜란드법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발전은 직접적인 법률 계승보다는 19세기 법전화 과정을 통해 구체화된 전문직 관계 보호라는 문화적 개념에 더 깊이 기반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ACP 원칙을 명시한 것은 해당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입법적 목적을 명확히 보여준다. [^7] 이러한 입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ACP 정책의 진화는 선제적이기보다는 사후 대응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26] 이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Akzo Nobel* 판결 이후에도 네덜란드 내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U 기준에 맞춰 자국법을 개정하려는 구체적인 입법 제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ACP를 인정하지만, 엄격한 보장 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11] 특히 사내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직업 규정을 통해 네덜란드 국내법상으로는 이들의 ACP를 인정하는 등, 네덜란드 실무는 의도적으로 다른 EU 국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5] 그러나 이러한 국내법상의 보호는 EU 차원의 조사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고용 변호사와의 소통은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를 받지만, 유럽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경우에는 그 특권이 보호되지 않는 이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다. [^2]

이는 네덜란드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법률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핵심 요인이다. [^4]

2. 한국의 사내변호사 ACP 도입을 위한 법제적·정책적 시사점

네덜란드의 사내변호사 법조비밀유지특권(ACP) 제도는 한국에서의 제도 도입 논의에 있어 중요한 법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네덜란드 사례는 ACP 인정의 전제 조건, 적용 범위의 명확화, 그리고 국제적 법률 환경과의 조화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첫째, ACP 적용 대상이 되는 사내변호사의 자격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네덜란드는 원칙적으로 사내변호사에게 외부 변호사와 동등한 수준의 비밀유지특권을 인정하지만, 이는 명확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 사내변호사(jurist)는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20] 또한, 고용주와 변호사 간에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전문 직업 규정(Professional Charter)’의 체결이 요구됩니다. 이는 네덜란드 법 체계에서 사내변호사의 ACP가 단순한 고용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직업윤리와 독립성을 국가가 공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임을 보여줍니다. 한국에서 ACP를 도입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무화, 독립성 보장을 위한 고용 계약 내 특칙 마련 등 사내변호사의 전문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설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둘째, ACP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적 법률 분쟁에서의 적용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덜란드 제도의 가장 큰 딜레마는 국내법과 EU법 간의 충돌에서 발생합니다.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 당국(ACM)의 조사에서는 자국법에 따라 사내변호사와의 소통 내용이 보호받지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면 그 특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이러한 이중적 기준은 국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에게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사실상 ‘특권의 복권(privilege lottery)’과 같은 상황을 초래합니다. 한국이 ACP를 도입할 경우, 미국이나 EU 등 주요 교역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의 ACP가 상호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용에 불과한 제도가 되어 실효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 **셋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내변호사의 현실적인 법률 자문 환경과 필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사내변호사에게 ACP 문제는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32] 통계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사내변호사의 특수한 필요가 간과될 수 있으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방대한 양의 전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법적 위험을 분석해야 하는 사내변호사의 역할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ACP 도입 논의는 전통적인 송무 중심의 시각을 넘어, 기업의 준법경영 및 리스크 관리라는 사내변호사의 핵심적 역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제 사내변호사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의 세부 사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보고서는 네덜란드의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특권(ACP) 제도의 연혁, 법적 근거, 주요 내용 및 효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하였으나, 연구 과정에서 몇 가지 명백한 한계가 존재하였음을 밝힌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이 분야의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 **첫째, 본 연구는 접근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에 있어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네덜란드 ACP 관련 판례는 주로 대법원(Hoge Raad)까지 이른 소수의 사건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로펌 압수수색과 관련된 사건에 편중되어 있어 전체적인 상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16] 이는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특권 관련 절차를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조회할 방법이 부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33] 특히, 사내변호사 (bedrijfsjuristen)와 관련된 데이터는 더욱 희소하여, 이들의 ACP 인정 범위와 실제 운영 현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32]
- **둘째, 네덜란드 ACP 제도의 독자적 발전 경로와 유럽연합(EU) 법체계와의 불일치 문제에 대한 심층적 법리 분석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네덜란드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Akzo Nobel* 판결 이후에도 사내변호사의 ACP를 일정 조건 하에 인정하는 등 EU 경쟁법의 해석과는 의도적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5] 이러한 법적 불일치는 실무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소비자 및 시장당국(ACM)의 조사에서는 보호받는 통신 내용이 유럽위원회의 조사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 비록 네덜란드가 ACP 원칙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7] EU 차원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 노력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적으로는 특권을 인정하더라도, [^11] 그 적용 범위와 한계는 계속해서 법적 쟁점이 될 것이다. [^4]

따라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우선, ACP 관련 하급심 판결 및 사내변호사 관련 분쟁 사례를 포함한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편향되지 않은 실증적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다음으로, EU 법체계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최신 판례들이 ACP의 적용 범위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고 있는 만큼, [^30]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법률이 명확해지더라도 실제 현장에서의 절차적 문제로 인해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9]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운영상의 개선 방안 연구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Het verschoningsrecht van de advocaat – actuele ontwikkelinge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stadhouders.nl/app/uploads/2022/11/38904358.pdf> [^2]: Akzo Nobel: Scope of Legal Privilege in EU Competition Context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aoshearman.com/en/insights/akzonobelsscopeoflegalprivilegeineucompetitioncontext> [^3]: Handleiding Wwft en UBO-register voor advocaten - Toezicht Advocatuur,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toezichtadvocatuur.nl/cms/public/files/handleiding-inleiding-wwft-en-ubo-register-voor-advocaten-27-09-2022-.pdf?94b7929bac> [^4]: 'Akzo Nobel': Implications For American Lawyers - Akin Gump,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akingump.com/a/web/33170/Akzo-Nobel-Implications-for-American-Lawyers.pdf> [^5]: Aanwijzing waarborgen professioneel verschoningsrecht - BWBR0050997 - Wetten.nl,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etten.overheid.nl/1.3:c:BWBR0050997&g=2025-07-01&z=2025-07-03> [^6]: Reactie NOvA op uitspraak prejudiciële vragen Hoge Raad | Nederlandse orde van advocate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advocatenorde.nl/nieuws/reactie-nova-op-uitspraak-prejudicile-vragen-hoge-raad> [^7]: zoek.officielebekendmakingen.nl,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zoek.officielebekendmakingen.nl/kst-32382-10.html#:~:text=Artikel%2011a,kennis%20neemt%20tot%20geheimhouding%20verplicht.> [^8]: Achtergrond: de advocaat als poortwachter tegen witwassen,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advocatenorde.nl/nieuws/de-advocaat-als-poortwachter-tegen-witwassen> [^9]: Achtergrond: de advocaat als poortwachter tegen witwasse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advocatenorde.nl/nieuws/de-advocaat-als-poortwachter-tegen-witwassen> [^10]: Het

verschoningsrecht van de advocaat – actuele ontwikkelinge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stadhouders.nl/app/uploads/2022/11/38904358.pdf> [^11]: Het verschoningsrecht van de advocaat – actuele ontwikkelinge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stadhouders.nl/app/uploads/2022/11/38904358.pdf> [^12]: Het verschoningsrecht van de advocaat – actuele ontwikkelinge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stadhouders.nl/app/uploads/2022/11/38904358.pdf> [^13]: Vaststelling van het nieuwe Wetboek van Strafvordering (Wetboek van Strafvordering) MEMORIE VAN TOELICHTING INHOUDSOPGAVE MEMORI - Strafrechtketen,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strafrechtketen.nl/binaries/strafrechtketen/documenten/kamerstukken/2023/03/21/memorie-van-toelichting-nieuw-wetboek-van-strafvordering/Memorie+van+toelichting+nieuw+Wetboek+van+Strafvordering.pdf> [^14]: NJB: Nieuws - Conclusie over het verschoningsrecht van advocate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njb.nl/nieuws/conclusie-over-het-verschoningsrecht-van-advocaten/> [^15]: Vier misverstanden over het verschoni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assets.budh.nl/advocatenblad/article_pdf/20083428/basis_pdf_oid.pdf [^16]: Onderzoek professioneel verschoningsrecht - WODC Repository,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repository.wodc.nl/bitstream/handle/20.500.12832/3018/2981-beroepen-op-het-professioneel-verschoningsrecht-volledige-tekst-r.pdf?sequence=1&isAllowed=y> [^17]: Werkwijze filteren digitaal verschoningsgerechtigd materiaal - De Rechtspraak,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rechtspraak.nl/SiteCollectionDocuments/Werkwijze-filteren-digitaal-verschoningsgerechtigd-materiaal-rechter-commissaris.pdf> [^18]: ECLI:NL:RBAMS:2025:1014, Rechtbank Amsterdam, 24-027517,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uitspraken.rechtspraak.nl/details?id=ECLI:NL:RBAMS:2025:1014> [^19]: ECLI:NL:HR:2024:1876, Hoge Raad, 24/00140,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uitspraken.rechtspraak.nl/details?id=ECLI:NL:HR:2024:1876> [^20]: Akzo Nobel: Scope of Legal Privilege in EU Competition Context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aoshearman.com/en/insights/akzonobelsscopeoflegalprivilegeineucompetitioncontext> [^21]: 'Zeer uitzonderlijke omstandigheden' bij doorbreking van het verschoningsrecht van een advocaat (verdachte van omkoping) en zijn kantoorgenoot (tevens advocaat, niet-verdachte) - BijzonderStrafrecht.nl,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bijzonderstrafrecht.nl/home/zeer-uitzonderlijke-omstandigheden-bij-doorbreking-van-het-verschoningsrecht-van-een-advocaat-verdachte-van-omkoping-en-zijn-kantoorgenoot-tevens-advocaat-niet-verdachte> [^22]: Het verschoningsrecht en de geheimhoudingsplicht van corporate advocate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advocatenblad.nl/2020/09/28/het-verschoningsrecht-en-de-geheimhoudingsplicht-van-corporate-advocaten/> [^23]: Werkwijze filteren digitaal verschoningsgerechtigd materiaal - De Rechtspraak,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rechtspraak.nl/SiteCollectionDocuments/Werkwijze-filteren-digitaal-verschoningsgerechtigd-materiaal-rechter-commissaris.pdf> [^24]: Het verschoningsrecht van de advocaat – actuele ontwikkelinge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stadhouders.nl/app/uploads/2022/11/38904358.pdf> [^25]: Hoge Raad geeft regels over het verschoningsrecht van in-house counsels,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hogeraad.nl/actueel/nieuwsoverzicht/2022/mei/hoge-raad-geeft-regels-verschoningsrecht-house-counsels/> [^26]: AG: geef rechter-commissaris grotere rol rond verschoningsrecht - Het Advocatenblad,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www.advocatenblad.nl/2023/12/11/ag-geef-rechter-commissaris-grotere-rol-rond-verschoningsrecht/> [^27]: NJB: Nieuws - Conclusie over het verschoningsrecht van advocaten,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njb.nl/nieuws/conclusie-over-het-verschoningsrecht-van-advocaten/> [^28]: Hoge Raad: deken van de Orde van Advocaten en het Bureau Financieel Toezicht hebben als toezichthouder zelfstandig verschoningsrecht,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hogeraad.nl/actueel/nieuwsoverzicht/2024/december/hoge-raad-deken-orde-advocaten->

[bureau-financieel-toezicht/](#) [²⁹]: Omgang met mogelijk verschoningsgerechtigde gegevens - Cassatieblog.nl,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cassatieblog.nl/prejudiciele-vragen-hoge-raad/omgang-met-mogelijk-verschoningsgerechtigde-gegevens/> [³⁰]: Hoge Raad: verschoningsrecht raakt het belang van de advocaat - Het Advocatenblad,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advocatenblad.nl/2021/02/23/hoge-raad-verschoningsrecht-raakt-het-belang-van-de-advocaat/> [³¹]: Akzo Nobel: Scope of Legal Privilege in EU Competition Context ..., 7월 14, 2025에 액세스, <https://www.aoshearman.com/en/insights/akzonobelscopeoflegalprivilegeineucompetitioncontext> [³²]: Onderzoek professioneel verschoningsrecht - WODC Repository,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repository.wodc.nl/bitstream/handle/20.500.12832/3018/2981-beroepen-op-het-professioneel-verschoningsrecht-volledige-tekst-r.pdf?sequence=1&isAllowed=y> [³³]: Onderzoek professioneel verschoningsrecht - WODC Repository, 7월 16, 2025에 액세스, <https://repository.wodc.nl/bitstream/handle/20.500.12832/3018/2981-beroepen-op-het-professioneel-verschoningsrecht-volledige-tekst-r.pdf?sequence=1&isAllowed=y>